

530년대 安羅의 「日本府」經營에 대하여

金 泰 植*

머리말

I. 「任那日本府」에 대한 기존설
비판

II. 安羅지역에의 「日本府」설치

III. 安羅의 「日本府」장악
맺음말

머리말

외모에 드러난 조그만 흄이 전체에 대한 평가를 그르치게 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任那日本府의 문제는 加耶史의 해명에 있어서 그러한 흄, 즉 뗐어야 뗄 수 없는 흑과 같은 존재일 뿐이나, 임나일본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상당히 과장되어 온 듯하다. 그러므로 가야사 전체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가야사에서 차지하는 임나일본부의 의미를 본래대로 축소시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른바 「任那日本府」라는 용어는 <<日本書紀>> 欽明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나,¹⁾ 6세기 중엽에는 아직 「日本」이라는 국명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당시의 명칭일 수는 없다. 欽明紀 15년 12월조의 백제가 일본에 보낸 國書에는 그 대신에 「在安羅諸倭臣」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바, 이것이 당시의 용어에 좀더 가까운 것이라고 보인다. 다만 任那日本府라는 이름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관계로 여기서는 그대로 사용하되, 그 이름에서 풍기는 선입견들은 일단 무시하고 구체적인 사건 전개 속에서 그 실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사학과 조교수

1) 「日本府」라는 용어는 <<日本書紀>>에 35회 나타나며, 그 중에서 雄略紀 8년 (464) 2월조의 1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欽明紀 2년(541) 4월조부터 13년(552) 5월조의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任那日本府」라고 되어 있는 것은 欽明紀에만 5회 나타날 뿐이다.

임나일본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미 너무도 다양하게 나와있어서, 혹자는倭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혹자는百濟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였으며, 또는 당시의 한반도 상황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가야족의 입장에 서서 일본부 관계사료들을 면밀하게 분석한 연구는 없었던 듯하다. 특히 530년대 당시까지大加耶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야연맹제국의 내부 사정과 관련하여,³⁾ 「일본부」를 자기 지역 안에 설치시킨安羅의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고의 제1장에서는 우선 임나일본부의 성격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를 欽明紀 소재의 사료들과 대비하여 비판적으로 재검토해 보고자 하며, 제2장에서는 역시 欽明紀의 사료들을 근거로 해서 530년대 당시에 백제에 의해 安羅지역에 일본부가 설치된 배경 및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그 후 安羅가 주변 정세 변동을 틈타서 일본부를 장악하는 과정을 추론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된 인물들의 성격을 가능한데까지 설명해 보고자 한다.

I. 「任那日本府」에 대한 기존설 비판

임나일본부의 성격에 대하여 가장 처음 체계화한 학설은倭에 의한任那支配機關說이다. 즉 임나일본부란 왜왕권이任那諸國을 군사정벌한 후 그 곳을 지배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라는 설이다. 이 설은末松保和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후,⁴⁾ 근래에 이르러 그 지배영역과 기간의 단축, 지배성격의 제한성을 언급하면서⁵⁾ 그 의미가 축소되어 왔지만, 여태

2)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현황 정리는拙稿〈任那日本府問題의 研究現況과 展望〉(《加羅文化》8, 麝南大學校 加羅文化研究所, 1990) 참조.

3)拙稿, 1985 〈5세기 후반 大加耶의 발전에 대한 研究〉《韓國史論》1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拙稿, 1988 〈6세기 전반 加耶南部諸國의 소멸과정 고찰〉《韓國古代史研究》1, 한국고대사연구회

4)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吉川弘文館

5) 井上秀雄, 1959 《いわゆる任那日本府について》《國史論叢》1; 1973 《任那日本府と倭》재수록

八木充, 1963 〈任那支配の二形態〉《山口大學文學會誌》14-2; 1964 〈大伴金村の失脚 -「官家支配」から「日本府支配」へ-〉《日本書紀研究》1

까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하여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설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즉 대규모이든 소규모이든간에 왜가 가야지역을 군사정벌한 혼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래 《日本書紀》 神功紀 49년(249; 개정 369년)조의 기사를 왜에 의한 임나 정벌의 증거로 인정해 왔으나, 그후의 사료검토를 통하여 《일본서기》에서 武烈紀 이전의 기사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거의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⁶⁾ 만일 369년의 왜의 출병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도 임나 '일본부' 와의 관련은 주어지지 않는다.⁷⁾ 근래에는 繼體紀 23년(529) 3월조의 기사에 의거하여 임나일본부가 近江毛野臣 군대의 安羅進駐에 의하여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하나,⁸⁾ 毛野臣은 임나정벌을 위한 군대병력을 인솔한 장군이라기보다 약간의 수행병력을 가진 사신에 불과하다.⁹⁾ 그 외에는 왜에서 임나정벌과 관련하여 군대를 파견하였다고 주장된 근거사료 또는 그 렇게 추정할 만한 기록이 전혀 없다.

둘째로, 임나일본부가 임나를 지배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欽明紀 소재 聖王의 말에 '任那는 安羅를 兄으로 삼아 오직 그의 뜻만을 따르고, 安羅人은 日本府를 天으로 삼아 오직 그의 뜻만을 따른다'는 표현이 나오고,¹⁰⁾ 백제의 회의 소집에 대해 任那執事들이 日本府卿의 不許를

- 山尾幸久, 1978 〈任那に關する一試論〉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下巻
 大山誠一, 1980 〈所謂「任那日本府」の成立について〉 《古代文化》 32-9 · 11 · 12, 古代學協會
 鈴木英夫, 1987 〈加耶·百濟と倭 一「任那日本府」論一〉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6) 諸田正幸, 1974 〈六世紀前期の日朝關係 一任那「日本府」を中心として一〉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1; 1974 〈古代朝鮮と日本〉(朝鮮史研究會編) 재수록, p.195.
 7) 《日本書紀》 神功紀에는 任那 '日本府' 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으며, 그와 관련된 언급조차 없다.
 8) 大山誠一, 1980, 앞 논문, pp. 761~762.
 鈴木英夫, 1987, 앞 논문, p. 82.
 9) 《日本書紀》 繼體天皇 23년(529) 3월조 기사에서 毛野臣에 대해 「使于安羅」라 든가 「勅使」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그는 僕로부터의 使臣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同 23년 4월조의 기사에서 그가 신라병사 3천을 보고 熊川(鎮海市)에서, 己叱己利城(昌原市)으로 후퇴했다고 하므로 그리 큰 병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拙稿, 1988, 앞 논문, p. 215). 게다가 그가 가야제국 중의 어느 하나를 공격하였다거나 하는 기록도 없다.
 10)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5년(544) 3월조
 「夫任那者 以安羅爲兄 唯從其意 安羅人者 以日本府爲天 唯從其意〔百濟本記云 以安羅爲父 以日本府爲本〕」

평계대어 참석치 않는 사례가 보이나,¹¹⁾ 이는 백제와 가야제국간의 외교에 있어서 상호간의 친선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外國人集團인 日本府를 중간 바람막이로 내세워 이용하는 정도의 사태를 반영할 뿐이다.

세째, 만일 임나일본부가 왜왕권이 파견한 한반도 代理統治機構라면 이 기관이 왜의 對백제·신라 외교의 중개역할도 수행해야 할텐데, 정작 임나문제에 대한 왜왕권의 정책도 그들이 대리 수행치 못하고 있었다. 즉 왜왕권의 사신들도 그들과 정책을 직접 논의하지 않고 따돌렸기 때문에 그들은 백제나 신라에 가서야 임나문제에 대한 天皇의 의사를 얻어 들을 수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¹²⁾ 임나일본부는 왜왕권의 위임을 받아 한반도 또는 임나지배를 구현하는 기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견해로서 百濟의 派遣軍司令部說이 있으니, 임나일본부는 백제가 가야지역을 군사정벌한 후 그 곳을 지배하기 위하여 파견한 군대의 사령부, 또는 백제가 그 곳에 설치한 直轄領을 통할하는 백제의 기관이었다는 것이다.¹³⁾ 우선 이 설이 성립되려면 임나일본부의 인원들이 모두 백제가 파견한 백제인이라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백제가 신라와의 국제관계상 그곳에 부분적으로 日人傭兵을 받아 배치하고 日系百濟官僚를 보내 그들을 지휘하게 하였다는 설명이 있으므로,¹⁴⁾ 불완전하나마 일단 논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백제의 파견군사령부 또는 가야지역통합기관이었다면 기본적으로 그들이 백제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을텐데, 사료상으로 볼 때 그들은 백제의 명령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백제의 의사에

11) 윗 책, 欽明天皇 5년(544) 3월조

「日本府答曰 任那執事不赴召者 是由吾不遣 不得往之 (중략) 任那旱岐等曰 由使來召 便欲往參 日本府卿不肯發遣 故不往焉」

12) 윗 책, 欽明天皇 5년(544) 2월조

「日本府答曰 (중략) 吾遣奏天皇 還使宣曰 討當以印奇臣(語訛未詳)遣於新羅 以津守連遣於百濟 汝待聞勅際 莫自勞往新羅百濟也。宣勅如是 會聞印奇臣使於新羅 乃追問天皇所宣 詔曰 日本臣與任那執事 應就新羅 麾天皇勅 而不宣百濟聽命也。後津守連遂來過此 謂之曰 今余被遣於百濟者 將出在下韓之百濟郡令城主 唯聞此說 不聞 任那與日本府 會於百濟 麾天皇勅。」

13) 千寬宇, 1977·1978 〈復元加耶史〉 〈〈文學과 知性〉〉 28·29·31

金鉉球, 1985 〈〈大和政權의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14) 金鉉球, 1985, 윗 책, p.218.

반하는 행동을 주로 하고 있다. 즉 임나일본부는 백제의 명령 없이 신라와 계략을 통하거나,¹⁵⁾ 백제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¹⁶⁾ 고구려와 내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백제를 공격하게 하는¹⁷⁾ 등의 처신을 보여서, 백제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집단을 백제의 파견 군사령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임나일본부의 성격을 加耶在地 倭系集團의 自治機關으로 보는 설도 있으니, 가야지역 内 신라·백제와의 접촉지대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한반도로 전너온 왜인들의 거주지역 즉 ‘日本府의 郡縣’ 이 있었고, 倭人을 자칭하는 임나의 地方豪族이 그 지역의 통치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大和朝廷과의 직접적인 관련 없이 일본의 중앙귀족이나 지방호족과의 관련이 있는 왜인이거나 또는 왜인을 詐稱한 임나인이 있으므로, 임나일본부는 임나에 있는 왜인거류집단 내지 假倭집단을 통치하는 자치기관이었다는 것이다.¹⁸⁾

위의 학설이 왜의 임나정벌을 상정하지 않은 채로 논리를 출발한 것은 그만큼 정밀한 사료고증과정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왜인계통의 거주집단이 가야의 변경지대에 살고 있었다면, 그들을 다스리는 자치기관도 그 곳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나일본부의 위치는 安羅國에 있으며 안라국에는 안라왕이 따로 있었으므로, 일본부의 郡縣은 신라·백제와 가야연맹의 접경지대에 흩어져 있고 그 자치기관은 가야 중심지의 하나인 안라에 있었다는 것이 되어,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논리라고 하겠다. 또한 日本府의 的臣은 ‘天勅’(왜왕의 조칙)을 받고 와서 任那의 일을修治하였다고도 하고, 그의 후임자를 백제가 왜왕권에게 파견 요청하기도

15)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2년(541) 7월조

「百濟聞安羅日本府與新羅通計 遣前部奈率鼻利莫古·奈率得文·中部奈率木易昧淳·紀臣奈率彌麻沙等 使于安羅 召到新羅任那執事 謨建任那 別以安羅日本府河內直通計新羅 深責屬之」

16) 앞의 주 11과 같음.

17)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9년(548) 4월조

「然馬津城之役(正月辛丑 高麗率衆 圖馬津城) 虜謂之日 由安羅國與日本府招來勸罰 以事准況 寔當相似(중략) 詔曰 式聞呈奏 爰觀所憂 日本府與安羅不救隣難亦朕所疾也 又復密使于高麗者 不可信也」

18) 井上秀雄, 1966 〈任那日本府の行政組織〉 《日本書紀研究》 2; 1969 〈古代日本のいわゆる南朝鮮經營〉 《朝鮮研究》 8; 1973 〈任那日本府と倭〉 재수록

하는 것으로 보아,¹⁹⁾ 임나일본부에는 왜에서 온 관료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데, 이를 단순한 在地 자치집단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왜인거주집단이 가야지역에 상당수 있었다는 전제조건 자체가 어느 사료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임나일본부의 성격을 단순히 가야와 왜 사이의 外交交渉을 맡는 使臣團 또는 外交機關으로 보는 연구경향도 있다. 그 내부에서도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임나일본부는 ①倭가 안라에 임시 파견한 개개의 使臣 또는 사신집단이라고 보는 使臣團說,²⁰⁾ ②야마도(大和)의倭가 아닌 별개의 왜가 가야에 파견했던 외교 官人の 殘存형태라고 보는 残存官人說,²¹⁾ ③임나가 對倭外交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外務官署라는 任那官署說²²⁾ 등이 있다.

이러한 학설들도 외부세력에 의한 임나지역 군사정벌이나 지배를 상정하지 않는 견해들이다. 그러나 임나일본부가 임시 파견의 사신 또는 사신집단이라면 사신으로서의 의사전달을 마치고는 곧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欽明紀의 사료상으로 보아 日本府卿인 的臣은 적어도 12년 이상을 安羅 한 곳에 체류하다가 거기서 죽는 것으로 나타나고,²³⁾ 그 휘하의 吉備

19) 《日本書紀》 권19 欽明天皇 14년(553) 8월조

「別の臣敬受天勅 來撫臣蕃 夙夜乾乾 勤修庶務. 由是 海表諸蕃皆稱其善 謂當萬歲 肅清海表 不幸云亡 深用追痛. 今任那之事 誰可修治. 伏願天慈速遣其代 以鎮任那.」

20) 請田正幸, 1974, 앞 논문, p.197.

21) 鬼頭清明, 1976 〈任那日本府の検討〉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p.251. 즉 이 논문에서는 임나일본부 문제를 일본의 내부사정과 연관시켜, 그것이 원래는 야마도정권과 별개의 정치주체로서의倭로부터 일찌기 가야지역에 파견된 외교 官人們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欽明紀에 나타나는 임나일본부는 6세기 전반 무렵 일본열도가 야마도정권에 의하여 통합된 이후倭地와의 연결이 끊긴 채로 가야지역에 남게된倭臣들의 잔존형태이리라고 추정하였다.

22) 奥田尚, 1976 〈任那日本府と新羅倭典〉 《古代國家の形成と展開》 吉川弘文館, p. 123. 이 논문에서는, '新羅倭典'이 신라가 對倭外交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라에 설치한 外務官署이듯이, '任那日本府'는 임나가 대외외교의 수행을 위하여 임나에 설치한 외무판서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23) 《日本書紀》 欽明天皇 2년(541) 7월조에 나오는 聖王의 언급 중에, '日本卿 등은 임나국에 오래 살았고 신라의 경계에 접해 있으니 신라의 사정 또한 아는 바일 것이오. (又日本卿等 久住任那之國 近接新羅之境 新羅情狀 亦是所知)'라는

臣·河內直 등도 거의 비슷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 안라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왜왕권이 그들을 안라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는 기사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단순한 使臣團說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두 번째의 설과 같이 임나일본부가 欽明天皇으로 대변되는 大和의 倭가 아닌 九州나 吉備지방의 왜정권에서 파견된 官人們이었다고 한다면, 백제가 그들의 처치에 대하여 야마도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을텐데, 실제로 백제는 임나일본부 官人们的 일원인 移那斯·麻都를 本處로 보내도록 야마도의 왜정권에게 요청하고 있으며,²⁴⁾ 的臣의 후임자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²⁵⁾ 게다가 欽明天皇은 任那의 下韓에 있는 백제의 郡令·城主를 일본부에 부속시켜야 한다는 말을 하고,²⁶⁾ 자신이 일본부에게 명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몰래 고구려에 사신을 보낸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²⁷⁾ 보아, 야마도가 한편으로는 임나일본부를 후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들 사이에 형식상 일정한 명령체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殘存官人說에도 의문이 남는다.

또한 세 번째의 설에서 임나일본부가 신라의 倭典(후의 領客府)과 같은 성격으로서 임나가 설치한 外務官署라고 본 것은, 임나의 주체적 설치 의도를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아무리 對倭의 외교를 주로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나의 관서라면 任那人 관리가 위주로 되어야 할텐데, 欽明紀 15년 12월조의 백제가 일본에 보낸 國書에는 「任那日本府」라

내용이 있고, 同 5년(544) 3월조에서 임나일본부의 대표자의 이름이 的臣으로 추정되며, 同 14년(553) 8월조에서 聖王이 그의 사망소식을 왜에 전하는 것이 나온다(앞의 주 19 참조). 그러므로 的臣의 안라 체류기간은 적어도 12년은 넘을 것이다.

24) 《日本書紀》 권19 欽明天皇 5년(544) 3월조

「假使二人〔二人者 移那斯與麻都也〕 在於安羅 多行奸佞 任那難建 海西諸國必不獲事 伏請 移此二人 還其本處 勅喻日本府與任那 而圖建任那」

25) 앞의 주 19와 같음.

26) 《日本書紀》 권19 欽明天皇 4년(543) 11월조

「遣津守連 詔百濟曰 在任那之下韓百濟郡令城主 宜附日本府(중략) 三佐平等答曰 在下韓之我郡令城主 不可出之」

27) 《日本書紀》 권19 欽明天皇 9년(548) 4월조

「詔曰 式聞呈奏 爰覲所憂 日本府與安羅不救隣難 亦朕所疾也 又復密使于高麗者不可信也 袂命卽自遣之 不命何容可得」

는 명칭 대신에 「在安羅諸倭臣」이라고 표현되어 있고²⁸⁾ 이 명칭이 〈〈百濟本記〉〉 계통 原史料의 기재방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임나일본부의 관리는 모두 일단 倭人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그러므로 이를 임나가 설치한 순수한 외무관서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위에 설명한 외교기관설들과 비슷하면서도 임나와 왜 사이의 상업적 교역을 중시하여, 임나일본부를 왜국이 가야에 설치한 公的 商館으로 보는 交易機關說이 있다.³⁰⁾ 일찌기 이병도는 ‘任那府’는 후세의 倭館 官吏와 같은 것으로서 본시 倭國이 加羅諸國과의 貿易關係를 위하여 설치한 公的 商館인데, 후에 加羅諸國이 신라의 압력에 못이겨 왜인의 원조를 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그 역할의 중심이 되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³¹⁾ 그 후 요시다는 위와 같은 교역기관설의 입장에 있으면서, 왜의 입장에서 보아 가야의 문물이 자신의 지배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긴요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³²⁾

이와 같은 교역기관설은 과거 조선시대 倭館의例나 당시의 정황 증거로 볼 때, 가장 사실에 근접한 견해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 설의 주장자들은 사료를 구체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欽明紀의 사료로 보아 임나 일본부가 그러한 무역의 대행을 실행한 사례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거기에 백제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는다고 하겠다.

28) 〈〈日本書紀〉〉 건19 欽明天皇 15년(554) 12월조

「百濟遣下部杆率汝斯干奴 上表曰 百濟王臣明 及在安羅諸倭臣等 任那諸國旱岐等奏 以斯羅無道 不畏天皇 與泊同心 欲殘滅海北彌移居 臣等共議 遣有至臣等 仰乞軍士 征伐斯羅。」

29) 임나일본부의 구성인원 중에서 的臣·吉備臣·河內直·印岐彌·許勢臣 등은 그 이름으로 보아 일단 倭人으로 추정되며, 麻都는 欽明紀 5년 3월조에 ‘韓腹’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倭系混血인 듯하다.

30) 李丙燦, 1937 〈三韓問題의 新考察〉(六) 〈〈震檀學報〉〉 7, p.113; 1976 〈洛東江流域의 地理와 上·下加羅〉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p. 305.

吉田晶, 1975 〈古代國家の形成〉 〈〈岩波講座日本歴史〉〉 2 (古代 2)

李根雨, 1985 〈日本書紀 任那關係 記事에 關하여〉 〈〈淸溪史學〉〉 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p. 29~34.

다만 위에서 이근우는 임나일본부를 설치한 주체를 九州의 倭로 보았으나, 앞의 殘存官人說을 비판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의문이 남는다.

31) 李丙燦, 1937, 윗 논문, p.117.

32) 吉田晶, 앞 논문, pp. 54~57.

Ⅱ. 安羅지역에의 「日本府」 설치

앞에서 임나일본부에 대한 모든 기존설을 일정하게 반박하였으나, 임나일본부가 기존설들에서 언급한 성격들을 조금씩은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를 토대로 하여 〈〈日本書紀〉〉欽明紀의 사료를 다시 천착하면서 임나일본부의 성격을 그 성립 과정과 연관하여 다시 살펴 보고자 한다.

〈〈日本書紀〉〉에서 '任那日本府'라는 이름은 欽明紀 2년(541) 4월조에 나오는 백제 聖明王의 언급 중에서 처음으로 나타나서,³³⁾ "나는 깊이 뉘우쳐서 下部中佐平 麻齒, 城方甲背 味奴 등을 加羅에 보내 任那日本府에서 모여 서로 맹세케 하였다."³⁴⁾는 내용이 보인다. 그리하여 근래의 일본학자들은 繼體紀 23년(529) 3월조에서 將軍君 尹貴, 麻那甲背, 麻齒 등이 백제의 사신으로 安羅會議에 참석했던 기사와³⁵⁾ 관련하여, 이 안라회의에 왜의 사신으로 참석했던 近江毛野臣이 있던 곳이 곧 백제에 의하여 임나일본부로 인식된 것이고, 毛野臣에 의하여 안라의 임나일본부가 성립된 것이라고 하였다.³⁶⁾

그러나 毛野臣은 그 후 얼마 안 있어 531년에 백제군의 안라진주로 인

33) 다만 〈〈日本書紀〉〉 卷14 雄略天皇 8년(464) 2월조에, 고구려가 신라를 침공하자 신라가 任那王에게 청하여 '日本府行軍元帥'를 보내주도록 요청하였다는 기사가 나와서, '日本府'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나나, 이 기사는 原史料系統도 불분명하고 그 후에 이 명칭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일단 조작기사로 보아 論外로 한다.

34) 〈〈日本書紀〉〉 卷19 雄略天皇 2년(541) 4월조
「聖明王曰 (중략) 我深懲悔 而遣下部中佐平麻齒・城方甲背味奴等 赴加羅 會于任那日本府相盟」

35)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3년(529) 3월조
「是月 遣近江毛野臣 使于安羅. 勅勸新羅 更建南加羅. 噩己昏. 百濟遣將軍君尹貴・麻那甲背・麻齒等 往赴安羅 式請詔勅. 新羅恐破蕃國官家 不遣大人 而遣夫智奈麻禮・奚奈麻禮 往赴安羅 式請詔勅. 於是 安羅新起高堂 引昇勅使. 國主隨後昇階. 國內大人 預昇堂者一二. 百濟使將軍君等 在於堂下. 凡數月再三 謨謀乎堂上. 將軍君等 恨在庭焉.」

이 기사에 대한 해석으로는拙稿, 1988, 앞 논문, pp. 213~220 참조.

36) 請田正幸, 1974, 앞 논문, p.195.
大山誠一, 1980, 앞 논문, pp. 761~762.
鈴木英夫, 1987, 앞 논문, p. 92.

하여 久斯牟羅(창원)에 쫓겨가 있으면서 백제의 압박을 받다가³⁷⁾ 그 해에 돌아가는 도중 對馬島에 이르러 죽었다고³⁸⁾ 하므로, 안라의 임나일본부를 그가 만든 것이라면, 그것이 541년 이후까지 그대로 존속해 있었을 것 같지가 않다. 또한 529년 당시에도 麻齒가 백제 重臣 중의 제2인자인 中佐平 직위에 있었다면, 繼體紀의 사신 명단에서 맨 뒤에 직함 소개도 없이 나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欽明紀 2년 4월조에서 언급한 任那日本府會議는 529년의 安羅會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후의 다른 회의를 가리킨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임나일본부가 529년을 전후한 시기에 毛野臣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541년 또는 그 직전의 어느 시기에 백제가 인정하는 임나일본부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한편 欽明紀에서 541년 이후의 임나일본부 소속 왜인계통 관료로서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日本府卿(大臣)으로 추정되는 的臣과 日本府執事인 吉備臣 및 기타 직급을 알기 어려운 河內直·移那斯·麻都·印岐彌·許勢臣 등이다.³⁹⁾ 그러므로 우선 그들이 安羅의 임나일본부에서 활약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살펴보아 임나일본부의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고자 한다. 이에 대한 기본 사료를 일단 살펴 보자.

1) <A> 백제가 奈率 阿德得文, 許勢奈率 奇麻, 物部奈率 奇非 등을 보내 표를 올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략) 그런데 조칙에 이르시기를, ‘的臣等[等이란] 吉備弟君臣·河內直 등을 일컫는다]이 신라에 왕래하는 것은 朕의 마음이 아니오. 옛날 印支彌[상세치 않다]와 阿齒旱岐가 있을 때 신라에게 펑박당해서 耕種할 수 없었는데, 백제는 길이 멀어 위급함을 구원할 수 없었고, 的臣等이 신라에게 왕래함으로 인하여 바야흐로 耕種할 수 있었다는 것을, 朕이 일찌기 들은 바 있소. 어찌 말하는 것으로만 죽하다 하리오?’ 하였습니다. 엎드려 이 조칙을 받자오니 기쁨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 듭니다만, 신라가 조정을 속인 것이지 天勅의 뜻이 아니

37)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4년(530) 9월조 및 拙稿, 1988, 앞 논문, pp. 213~220 참조.

38)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4년(530) 是歲條
「是歲 毛野臣 被召到于對馬 逢疾而死。」

39) 이들의 이름은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2년(541) 4월조부터 同 14년(553) 8월조에 걸쳐서 나온다.

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라는 봄에 噴淳을 빼앗고 그로 인해 우리 久禮山戍를 물리쳐 쫓아내고 결국 그것을 점유하여, 安羅에 가까운 곳은 安羅가 耕種하고 久禮山에 가까운 곳은 斯羅가 耕種하게 되어, 각자 그것을 경작하면서 서로 침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移那斯·麻都는 남의 경계를 넘어 경작하다가 6월에 도망갔습니다. 印支彌의 후에 온 許勢臣 때에는 〔〈百濟本記〉에는 「우리가 印支彌를 머무르게 한 후 既酒臣때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으나, 모두 상세치 않다.〕, 신라가 다시 남의 경계를 침범하여 펍박해 오지 않아서, 安羅는 신라에게 펍박되어 耕種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欽明紀 5년 3월조)⁴⁰⁾

2) 聖明王이 그들(任那執事들)에게 말했다. “任那國은 우리 백제와 옛부터 지금까지 子弟가 되기로 약속하였소. 그런데 지금 日本府 印岐彌(任那에 있는 日本臣의 이름을 가리킨다)가 이미 신라를 치고 다시 우리를 공벌하려 하며 또한 신라의 허망한 거짓말을 즐겨 듣고 있소. 대저 印岐彌를 任那에 보낸 것은 본래 그 나라를 침해하라는 것이 아니었소[상세치 않다].”(欽明紀 5년 11월조)⁴¹⁾

위의 사료 1은 왜의 欽明天皇이 543년 11월에 보낸 國書에 대하여 백제 聖王이 544년 3월에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 보낸 表文의 일부분으로서, 530년대의 임나문제를 둘러싼 사건들에 대한 회고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백제 성왕이 왜에 대하여 稱臣을 하고 왜왕조의 의사를 天勅이라고 표현하는 등의 어법과 인명표기 등의 용어문제는, 당시의 진상

40)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5년(544) 3월조

「百濟遣奈率阿德得文·許勢奈率奇麻·物部奈率奇非等 上表曰。 (中略) 於是 詔曰 的臣等〔等者 謂吉備弟君臣·河內直等也〕往來新羅 非朕心也。 義者印支彌〔未詳〕與阿齒旱岐在時 爲新羅所逼 而不得耕種 百濟路迥 不能救急 由的臣等往來新羅 方得耕種 朕所曾聞 苦已建任那 移那斯·麻都自然退却 豈足云乎。 伏承此詔喜懼兼懷 而新羅誑朝 知非天勅 新羅春取噴淳 仍擯出我久禮山戍 而遂有之 近安羅處 安羅耕種 近久禮山處 斯羅耕種 各自耕之 不相侵奪 而移那斯·麻都過耕他界 六月逃去 於印支彌後來許勢臣時〔百濟本記云 我留印支彌之後 至既酒臣時 皆未詳〕 新羅無復侵逼他境 安羅不言爲新羅逼不得耕種。」

41) 〈〈百濟書紀〉〉 卷19 欽明天皇 5년(544) 11월조

「聖明王謂之曰 任那之國與吾百濟 自古以來 約爲子弟 今日本府印岐彌(謂在任那 日本臣名也) 既討新羅 更將伐我 又樂廳新羅虛誕謾語也。 夫遣印岐彌於任那者 本非侵害其國〔未詳〕」

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기보다 8세기초의 〈〈일본서기〉〉 찬자에 의하여
변개된 것으로 보이나, 일단 원문 그대로 번역해 두고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 사료 2는 欽明紀 5년(544) 11월의 제2차 任那復興會議에서 聖王이
언급한 것 중의 일부이다.

사료 1의 내용으로 보아, 그 A부분의 ‘옛날 印支彌와 阿齒旱岐가 있을
때’라는 표현을 통해, 印支彌가 的臣等보다 먼저 일찍부터 安羅에 거주하
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B부분 細注의 〈〈百濟本記〉〉 인용문을
통해, 그를 그 곳에 머무르게 한 것은 백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료 2에서 ‘日本府印岐彌〔謂在任那日本臣名也〕’라는 표현과 ‘대저 印岐
彌를 임나에 보낸 것은 본래 그 나라를 침해하라는 것이 아니었소.’라는
말이 나오므로, 印岐彌(즉 印支彌)는 임나일본부의 一員으로서 안라에 있
는 倭人 官僚이고 백제 성왕이 보낸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나일본부란, 백제가 임나의 一國인 安羅에 왜인 관료인 印
岐彌를 파견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 것이라고 하겠는데, 印岐彌는 어떠한
성격의 인물이고, 백제는 印岐彌를 언제 그리고 무슨 이유로 安羅에 파견
한 것일까?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사료는 없으므로,
여러모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우선 印岐彌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를 일본에서 임나일본부에 파견되어
軍事面의 일을 담당하는 派遣將軍으로 보는 설,⁴²⁾ 백제가 임나제국의 공동
외교기관인 임나일본부에 파견한 在安羅百濟臣으로 보는 설,⁴³⁾ 백제가 가
야지역에 설치한 直轄領의 軍事責任者로 보는 설,⁴⁴⁾ 및 日系安羅人으로서
안라의 독립보존을 위해 활동한 인물로 보는 설⁴⁵⁾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오쿠다의 在安羅百濟臣說이 가장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나, 그 문제
를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2) 井上秀雄, 1966 〈任那日本府の行政組織〉 〈〈日本書紀研究〉〉 2; 1973 〈〈任那日
本府と倭〉〉 p. 88.

43) 奥田尚, 1976, 앞 논문, p. 125.

44) 金鉉球, 1985, 앞 책, pp. 223~224. 여기서 그는 印岐彌·許勢臣 등을 백제
가 任那의 下韓에 설치한 郡令·城主와 동일시하였다.

45) 延敏洙, 1990 〈任那日本府論 一소위 日本府官人の 出自를 중심으로—〉 〈〈東國
史學〉〉 24, 東國史學會, p. 115.

사료 1-B기사에서 ‘우리가 印岐彌를 머무르게 한 후’⁴⁶⁾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와 비슷한 표현이 위의 기사의 앞에 나오는 聖王의 말로서 ‘그러므로 己麻奴跪를 머무르게 하고’⁴⁷⁾라는 말이 나오는데, 己麻奴跪 즉 津守連은 543년 11월에 일본의 國書를 가지고 백제에 왔던 왜인 사신이므로,⁴⁸⁾ 印岐彌도 그와 비슷한 성격의 인물로서 그보다 앞선 시기에 일본에서 온 왜인 사신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게다가 백제가 己麻奴跪를 머무르게 할 때 왜왕조의 동의를 구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백제 임의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아,⁴⁹⁾ 印岐彌의 경우에도 백제는 왜왕조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그에게 직무를 주어 일을 시켰다고 보인다.⁵⁰⁾ 그러므로 백제는 왜로부터의 사신인 印岐彌를 포섭해서, 某種의 임무를 주어 安羅에 보내 머무르게 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렇다면 백제가 倭臣을 안라에 머무르게 하였다고 할 때, 그 안라 거주의 倭臣이 맡은 직무는 무엇이었을까? 사료 2의 기사에서, 백제 성왕이 가야제국의 침략들에게 ‘印岐彌를 임나에 보낸 것은 본래 그 나라를 침해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印岐彌의 직무가 이른바 임나의 경영 또는 통치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다. 아마도 백제가 印岐彌에게 맡긴 공식적인 직무는 백제와 왜왕조 사이의 통상적인 교역의 代行

46) 이 귀절의 원문은 「我留印岐彌之後」인 바, 여기서의 ‘我留’를 〈〈釋日本紀〉〉에 의해 ‘カル’로訓을 달아, 이를 印岐彌의 氏名으로서 ‘輕部臣’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李弘植, 1963 〈任那問題を中心とする欽明紀の整理－主要關係人物の研究－〉 〈〈青丘學叢〉〉 25, pp.39~41), 그 이후 이 설을 따르는 연구를 본 적이 없다.

47)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5년(544) 3월조

「故留己麻奴跪(蓋是津守連也)別遣疾使迅如飛鳥 奉奏天皇」

48) 앞의 주 26 참조. 다만 欽明紀 5년(544) 3월조의 기사에서 己麻奴跪는 541년 7월에 奈率彌麻沙 등의 백제사신을 따라 일본에 갔다는 말이 나오므로, 그는 이미 그 이전에도 백제에 사신으로 파견되어온 적이 있던 倭使였다고 보인다.

49) 앞의 주 47과 같음.

50) 그러한 사례로는 日羅의 예도 있으니, 그는 일본 九州사람으로서 宣化天皇代(535~539)에 백제에 사신으로 갔다가 그대로 백제에 머물러, 583년 당시에는 백제조정에서 達率벼슬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왕권측의 송환요청에 백제가 응하지 않으려고 한 사건이 보인다. 〈〈日本書紀〉〉 권20 敏達天皇 12년(583) 7월 및 12월조 참조.

일 가능성은 높다.

즉 백제는 神功紀 46년부터 52년조에 걸쳐 보이듯이 4세기 후반의 어느 시기에 卓淳(창원)을 매개로 한 對倭交涉路를 개척하고,⁵¹⁾ 그 이후 계속해서 이 卓淳路를 통해 원활한 對倭交易를 진행시켰다고 보인다. 이 교역로는 4세기 말 5세기 초의 시기에 고구려의 공격과 신라의 간섭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수도 있으나, 백제의 이용에 반발할 만한 재지세력이 없는 한 대체로 지속되었으리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5세기 후반에 이르러 大加耶의 대두와 아울러 백제는 한동안 이 지역을 통한 대외교역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6세기 초 이후 帶沙(하동)를 통한 대외교역 시도도 대가야족의 반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⁵²⁾ 그러다가 대가야·신라 사이의 國婚의 결렬과 연관하여 가야제국 사이에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자, 백제는 그 틈을 이용하여 531년에 안라의 乞德城에 군대를 진주시키고 534년에 久禮牟羅城(구례산 5성)을 축조하여 卓淳에 압력을 넣을 수 있게 되었다.⁵³⁾ 그러므로 이러한 계기를 맞이하여 백제는 5세기 후반 이래의 대외교섭 부진을 만회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이 예상되는 것이다.

당면한 국제여건의 변화를 토대로 해서 백제는 대외교역의 안정적인 통로를 확보하고, 그러한 교역을 빌미로 해서 가야제국에 親百濟系 인물을 상주시켜 가야지역의 정보를 재빨리 입수하여 신라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당시에 對高句麗 防衛를 위하여 화친관계에 있던 신라나 해당 지역에 있는 가야제국으로 하여금 강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백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야연맹 남부제국의 새로운 영도자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는 安羅에 친백제계 왜인들이 상주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그를 매개로 해서 대외교섭에 유리한 卓淳路를 회복하여 운영하는 것이었으리라고 추정된다. 그것이 백제가 안라에 印岐彌를 파견한 이유이고, 그 시기는 백제의 가야남부지역 공략이 일단 완료된 534년 이후 그리 멀지 않은 때였을 것이다.

한편 백제의 구상은 안라를 비롯한 가야제국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 것

51) 李賢惠, 1988 〈4세기 加耶社會의 交易體系의 变遷〉 〈〈韓國古代史研究〉〉 1(한국고대사연구회편), 지식산업사, pp. 171~178.

52) 拙稿, 1985, 앞 논문 참조.

53) 拙稿, 1988, 앞 논문 참조.

이라고 보이므로, 안라를 비롯한 가야남부제국과 왜왕조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와 같은 구상이 그리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안라에서 동쪽으로 더 나아가 久禮牟羅城에 어느 정도의 백제군대가 주둔해 있는 상태에서는 부득이한 일이라고 보아, 안라는 안라대로 왜왕조는 왜왕조대로 백제의 조치에 대하여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安羅에 倭人들로 구성된 백제·왜 사이의 交易機關이 설치되었고, 그것이 바로 任那日本府가 아니었을까 한다.

그러므로 534년 이후 성립 당시의 임나일본부는 대체로 백제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그 성립 초기의 印岐彌는 사료 2에 보이듯이 신라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취하기도 하고,⁵⁴⁾ 사료 1-A기사에 보이듯이 印岐彌와 阿齒旱岐⁵⁵⁾가 있을 때는 안라가 신라에게 팝박을 당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백제·왜 두나라 사이의 교역 기관을 자기 지역에 두고있는 독립소국인 安羅는, 중개무역 거점으로서의 위치를 십분 활용하여 가야제국에 대한 영도권을 확대시킴으로써, 차츰 大加耶의 전체가야지역에 대한 패권을 잠식하여 남부제국에서의 일정한 패권을 수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III. 安羅의 「日本府」 장악

앞에서 백제가 534년 직후의 어느 시기에 安羅에 倭人官僚인 印岐彌를 파견하여 백제·왜 사이의 교역기관을 설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임나일본부가 성립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임나일본부가 백제의 영향 아래 운영되는 상태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한 듯하니, 신라가 힘을 배경으로 하여 가야지역에 대한 波狀攻勢를 가해오고, 그에 따라 卓淳國이 스스로 신라에 투항하면서⁵⁶⁾ 사태는 급변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앞 절에서 인용한 欽明紀 5년 3월조 기사(사료 1)

54) 사료 2에서, '지금 日本府의 印岐彌가 이미 신라를 친 적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임나일본부 성립 초기의 印岐彌의 행적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55) 阿齒旱岐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으나, 문맥상으로 보아 그는 임나일본부 성립 당시에 백제에게 협력하였던 安羅國의 王으로서, 540년대에는 이미 죽어서 존재하지 않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56) 卓淳國의 멸망과정에 대해서는拙稿, 1988, 앞 논문, pp. 227~233 참조.

의 B부분의 내용은 그러한 사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신라가 530년대 후반의 어느 시기에 탁순국을 병합하고 그를 배경으로 해서 백제의 久禮山戍를 물리쳐 爰아내자, 백제는 卓淳路를 일시에 상실하게 되었고, 안라는 신라의 침공에 직면하면서 한편으로는 백제의 직접적인 강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⁵⁷⁾

그런데 그 직후에 안라는 곧 신라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안정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에 대한 백제 성왕의 설명을 들어 보자.

3) 臣이 일찌기 들으니, 신라가 봄·가을마다 군사와 무기를 많이 모아 安羅와 荷山을 치려 한다고도 하고, 혹은 加羅를 칠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무렵 書信을 받고, 즉시 將士를 보내 任那를 막아 지킴에 게으로 거나 쉬지 않아, 자주 銳兵을 내보내 때에 맞춰 가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임나는 차례대로 耕種하게 되었고 신라는 감히 침범하여 휩박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오히려 '백제는 길이 멀어 위급함을 구원할 수 없었고, 的臣等이 신라에 왕래함으로 인하여 바야흐로 耕種할 수 있었다.'고 상주하였으니, 이는 위로 天朝를 속이고 더욱더 간사하게 아첨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이 명백한데 오히려 天朝를 속였으니, 이밖의 허망함은 반드시 많이 있을 것입니다. 的臣等이 여전히 安羅에 거주하면 任那國은 아마도 건립하기 어려울 것이니, 빨리 퇴각시켜야 마땅합니다. (欽明紀 5년 3월조)⁵⁸⁾

이 기사는 앞 절에서 인용한 사료 1의 A·B에 그대로 이어지는 성왕의 표문 내용이다. 여기서의 문투로 보아, 아마도 임나일본부의 上奏를 토대

57) 欽明紀 5년 3월조(사료 1)에 인용된 왜천황의 조칙 중에서 '(安羅가) 신라에게 휩박당해서 耕種할 수 없었는데, 백제는 길이 멀어 위급함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당시의 안라에는 신라의 위협이 존재하면서 백제의 억압은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58)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5년(544) 3월조

「(前略) 臣嘗聞 新羅每春秋多聚兵甲 欲襲安羅與荷山 或聞 當襲加羅. 頃得書信 便遣將士 擁守任那 無懈息也 頻發銳兵 應時往救. 是以 任那隨序耕種 新羅不敢 侵逼 而奏 百濟路迥 不能救急 由的臣等往來新羅 方得耕種 是上欺天朝 轉成奸佞也. 曉然若是 上欺天朝 自餘虛妄 必多有之. 的臣等猶住安羅 任那之國恐難建立 宜早退却.」

로 하여, 倭天皇은 일본부의 的臣等이 신라와 접촉함으로써 안라의 안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백제는 그들이 수시로 군대를 보내 신라를 막았기 때문에 안라의 안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백제 성왕이 들었다는 신라의 安羅·荷山⁵⁹⁾ 및 加羅 침공의 정보는, 신라의 久禮山戍 함락 이후 임나일본부에 들어간 許勢臣(既酒臣)을 통해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백제는 부지불식간에 타순의 멸망과 久禮山戍의 함락이라는 상황에 접하게 되자, 印岐彌를 의심하여 새로이 親百濟系倭人인 許勢臣을 다시 임나일본부에 들여보내(사료 1-B) 사태를 돌이켜 보려고 시도하고, 그로 인하여 윗 기사에 보이듯이 그를 통해 가야지역의 사태를 파악하면서 임기옹변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백제는 538년 봄에 사비성(扶餘)으로 천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530년대 후반 당시에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실행할 수는 없었으리라고 추정된다. 성왕은 안라의 안정이 許勢臣 이후의 백제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때늦은 강변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렇다면 이 때부터 출현이 확인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임나일본부의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的臣등은 어떤 성격의 인물들이었을까? 的臣에 대해서는, 이노우에가 이를 일본에서 파견되어와서 임나일본부를 지휘하는 日本府卿이었다고 본⁶⁰⁾ 이후에는 거의 異說이 없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任那支配說을 주장하는 연구자들⁶¹⁾ 뿐만 아니라 外交機關 또는 交易機關說을 주장하는 연구자들⁶²⁾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大和의 왜왕권이 능동적으로 그를 파견한 것인지,⁶³⁾ 아니면 그가九州 등지의 다른 곳에서 私

59) 荷山의 위치는 高靈郡 牛谷面 浦洞 소재의 나즈막한 산인 '하미'에 비정된다. 이 곳은 일제시기의 〈五萬分地圖〉昌寧地分에는 高靈郡 斗谷面 '荷山'으로 나왔던 곳이나 (鮎貝房之進, 1937 〈日本書紀朝鮮地名攷〉 〈雜攷〉 7 下卷, p. 101), 1983년판 國立地理院 발행의 〈오만분의 일지도〉「昌寧」(도엽번호 NI 52-2-10)에는 牛谷面 '하미'로 되어있다. 이 지역은 高靈郡 東南端의 낙동강안 구릉으로서, 高靈·草溪·玄風·昌寧 일대의 낙동강 수로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이다.

60) 井上秀雄, 1973 〈〈任那日本府と倭〉〉 p. 83.

61) 大山誠一, 1980, 앞 논문(上), p. 536.

鈴木靖民, 1985 〈東アジア諸民族の國家形成と大和王權〉 〈〈岩波講座日本歴史〉〉 1(原始·古代1), p. 220.

62) 吉田晶, 1975, 앞 논문, p. 56.

鬼頭清明, 1976, 앞 논문, pp. 247~248.

63) 井上秀雄, 앞 책, p. 83.

의 交류를 위해 안라에 온 것인지⁶⁴⁾에 대해서는 확정지을 수 없다.

그러면 的臣이 파견되어온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할까? 일찌기 的臣을 印奇臣과 동일시하여 그 파견시기를 543년(欽明 4년) 11월로 본 견해가 있었고,⁶⁵⁾ 근래에는 다만 的臣이 毛野臣의 후임으로서 (534년경에?) 파견되었다고 본 견해가 있을 뿐이다.⁶⁶⁾ 그러나 앞에서 인용한 欽明紀 5년 (544) 3월조에 나오는 일본의 ‘조칙’은 同 4년(543) 11월에 津守連이 가져온 것인데, 그 곳에 이미 的臣의 안라에서의 과거 활동이 나타나 있으므로, 그를 津守連과 같이 파견된 印奇臣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다. 또한 전술했듯이 毛野臣이 임나일본부를 성립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的臣을 毛野臣의 후임자로 보기로 어렵다.

사료 1-A 및 사료 3으로 보아, 的臣은 안라가 신라의 패박으로 인하여 위급한 시기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백제가 印岐彌를 안라에 파견함으로써 임나일본부가 성립하고나서 그것의 존립이 혼들리게 된 시기, 즉 신라가 卓淳 및 久禮山戊를 합락시킨 이후에 임나일본부를 대표하는 인물로 대두된 것이다.

的臣이 오래전부터 안라에 거주하고 있다가 그 때 이후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비로소 일본으로부터 파견되어온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欽明紀 2년(541) 7월조에 나오는 聖王의 언급중에 ‘日本卿등은 임나국에 오래 살았다’는 내용이 있으므로,⁶⁷⁾ 그의 도래시기가 541년보다 오래전이었을 가능성성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사료 3에서 백제 성왕이 왜에게 ‘的臣等이 여전히 安羅에 거주하면 任那國은 아마도 건립하기 어려울 것이니, 빨리 퇴각시켜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的臣等이 안라에 머무르는 것은 백제와는 관계없이 안라 및 왜의

吉田晶, 앞 논문, p. 56.

大山誠一, 앞 논문, p. 536.

64) 鬼頭清明, 앞 논문, p. 249.

延敏洙, 앞 논문, p. 122.

65) 李弘植, 1936, 주 46의 논문, pp. 35~37.

66) 大山誠一, 1980, 앞 논문(下), p. 765. 이 견해를 그대로 받아 들일 때, 毛野臣이 大和로부터 소환되어 가다가 죽은 해가 繼體 24년(530; 수정 533)이므로, 오오야마는 的臣의 파견년대를 534년경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보인다.

67) 〈〈日本書紀〉〉 권19 欽明天皇 2년 7월조

「又日本卿等 久住任那之國 近接新羅之境 新羅情狀 亦是所知」

의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추정케 한다. 안라는 自國內에 있는 왜인조직인 임나일본부를 백제의 동의 없이 개편하는 과정에서, 왜왕권과 접촉하여 그의 동의 아래 자국내의 的臣등을 임명하였든지, 또는 왜왕권으로부터 새로운 관료의 파견을 요청하여 的臣등을 수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안라는 이 기회에 임나일본부를 장악하여 백제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동시에 왜왕권과의 관련 아래 직접倭의 官人們을 임명하여 임나일본부를 확대 개편하여, 그 성격을 가야제국과 왜 사이의 교역기관으로 변경시킨 듯하다. 그 후로 계속해서 임나일본부의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吉備臣⁶⁸⁾ 등도 的臣과 마찬가지의 경로를 거쳐 활약하기 시작한倭臣들이며, 그런 과정 중에 印岐彌는 的臣을 위주로 하는 조직 아래 재편되었다고 보인다.⁶⁹⁾

이렇게 변질된 임나일본부도 안라의 독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들은 안라측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봉사하게 되었으며, 이제 백제의 간섭을 받음 없이 신라와 접촉하여 안라의 독립 보장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앞절에서 인용한 사료 1-A와 위의 사료 3에서 왜의 천황이 임나일본부의 보고를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로서, 안라 및 임나일본부의 이러한 조치는 신라의 위협으로부터의 안라의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된다.⁷⁰⁾

다면 왜국측에서 백제에게 대하여 '的臣等이 신라에 왕래하는 것은 賑의 마음이 아니오.'라고 변명하면서 안라의 독립보장을 위해 的臣等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임나일본부의 활동이 일일

68) 吉備臣에 대해서는, 이를 막연히 일본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견해(井上秀雄, 1973, 앞 책, p. 83)와, 원래 독자적으로 가야지역에 진출해 있던 加耶在住 日系人으로서 大和의 진출 이후 毛野臣에 의해 흡수된 자로 보는 견해(大山誠一, 1980, 앞 논문, p. 536, p. 765), 및 任那在住의 吉備臣氏의 一員으로서 雄略紀에 나오는 任那國司 吉備上道臣田狹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李弘植, 1936, 앞 논문, p. 27), 또는 吉備지방 출신 호족으로서 안라에서 민간레벨의 외교를 하던 인물로 보는 견해(延敏洙, 1990, 앞 논문, p. 123) 등이 있다.

69) 앞의 주 41참조. 欽明紀 5년 11월조에서, 印岐彌가 이미 신라를 치고나서 다시 백제를 치려 하고 신라의 허망한 거짓말을 즐겨 들고 있다는 말은, 그의 태도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70) 사료에서 '的臣等이 신라에 왕래함으로 인하여 (안라는) 바야흐로 耕種할 수 있었다'는 표현은, 임나일본부의 활동에 의한 안라의 안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천황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 후 임나일본부가 한 일을 보면, 백제와의 임나부흥회의에 任那阜岐들과 함께 임하기도 하고,⁷¹⁾ 신라와 다시 접촉하기도 하고,⁷²⁾ 일본에 사신을 보내 의사를 타진하기도 하고,⁷³⁾ 백제의 任那執事 소집을 거부하기도 하고,⁷⁴⁾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백제의 웅장을 요청하기도 하였다.⁷⁵⁾ 이는 임나일본부가 왜국에 의하여 설치되었다는 명분을 대외적으로 가지기는 하되, 실체적으로는 임나일본부 존립의 전제조건으로서 安羅를 비롯한 가야제국의 독립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케 한다.

그러므로 그 이후 6세기 중엽에 보이는 임나일본부는 530년대 후반에 안라의 의도에 의하여 개편된 것이라 하겠으며, 그 성격은 기본적으로 加耶諸國과 倭王朝 사이의 交易機關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임나일본부의 성격이 그렇게 변질된 이후, 日本府臣들의 對新羅 교섭과정에서 移那斯·麻都 등의 倭系官인이 일본부에 합류하게 되면서, 그 후의 일본부는 反百濟 親新羅의 입장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移那斯·麻都 등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한다. 해당 사료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4) 별도로 安羅日本府의 河內直이 신라와 계략을 통한 것을 짚어 따져 꾸짖었다[百濟本記에서는 「加不至費直·阿賢移那斯·佐魯麻都等」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치 않다].(欽明紀 2년 7월조)⁷⁶⁾

5) 별도로 河內直[百濟本記에서는 「河內直·移那斯·麻都」라고 했으나, 말이 잘못되어 어느 것이 맞는지 상세치 않다]에게 일렀다. “그대의 선조들[百濟本記에서는 「그대의 선조 那干陀甲背·加獵直岐甲背 또는 那奇陀甲背·鷹奇岐彌」라고 하였으나, 말이 잘못되어 상세치 않다.]은 모두 마음에 간사함과 거짓됨을 품어 감언이설을 말했소. 爲哥可君[百濟本記에는

71) 《日本書紀》卷19 欽明天皇 2년(541) 4월조 및 同 5년(544) 11월조.

72) 윗 책, 欽明天皇 2년(541) 7월조

73) 윗 책, 欽明天皇 5년(544) 2월조

74) 위의 주와 같음.

75) 《日本書紀》卷19 欽明天皇 9년(548) 4월조 및 同 10년(549) 6월조.

76) 《日本書紀》卷19 欽明天皇 2년(541) 7월조

「別以安羅日本府河內直通計新羅 深責罵之[百濟本記云 加不至費直·阿賢移那斯·佐魯麻都等 未詳也]」

「爲哥岐彌， 이 뜻은 有非岐라고 되어 있다.」은 그 말을 전적으로 믿어, 나라의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고 내 마음을 거역하여 제멋대로 暴虐을 저질러서, 이 때문에 쫓겨 났으니 오로지 그대의 탓이오. 그대들이 任那에 내왕하며 항상 옳지 않은 짓을 하였으므로, 任那가 날로 손상됨은 오로지 그대의 탓이오.」(欽明紀 5년 2월조)⁷⁷⁾

6) 신이 매우 경계하는 佐魯麻都는 비록 韓腹이지만 그 지위가 大連에 있고, 日本執事의 사이에 끼어 榮班貴盛의 대열에 들어갔으면서도 지금은 도리어 新羅 奈麻禮의 冠을 쓰고 있으니, 그 마음이 다른 곳에 歸附하였음을 쉽사리 알 수 있습니다. (欽明紀 5년 3월조)⁷⁸⁾

7) 紀生磐宿禰는 任那에 머물러 있으면서 高麗에 교통하고, 서쪽에서 三韓의 王이 되려고하여 官府를 정비하고 스스로 神聖이라고 칭했다. 任那左魯那奇他甲背등의 계책을 사용하여 百濟의 適莫爾解를 爾林[爾林은 高麗의 땅이다]에서 죽였으며, 帶山城을 쌓고 동쪽을 막아 지켜서 양곡 운반하는 나루를 차단하여 軍을 鎖어 지치게 하였다. 百濟王은 크게 노하여 領軍 古爾解와 內頭 莫古解 등을 파견하여 무리를 이끌고 帶山에 모여 공격했다. 이에 生磐宿禰는 군대를 내보내 맞받아 쳤는데 膽氣가 더욱더 왕성해져서 향하는 곳마다 모두 격파하고 한 사람이 백사람을 당해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병사가 다하고 힘이 지쳐서 일이 성취되지 못함을 알고 任那로부터 돌아왔다. 그리하여 百濟國은 佐魯那奇他甲背등 300여 명을 죽였다. (顯宗紀 3년 是歲)⁷⁹⁾

77) 웃 책, 欽明天皇 5년(544) 2월조

「別謂河內直〔百濟本記云 河內直・移那斯・麻都 而語訛未詳其正也〕自昔迄今 唯聞汝惡. 汝先祖等〔百濟本記云 汝先那干陀甲背・加獵直岐甲背 亦云那奇陀甲背・鷹奇岐彌 語訛未詳〕俱懷奸偽誘說. 爲哥可君〔百濟本記云 爲哥岐彌 名有非岐〕專信其言 不憂國難 乖背吾心 縱肆暴虐 由是見逐 職汝之由. 汝等來往任那 恒行不善 任那日損 職汝之由.」

78) 웃 책, 欽明天皇 5년(544) 3월조

「臣深懼之佐魯麻都 雖是韓腹 位居大連 廉日本執事之間 入榮班貴盛之例 而今反着新羅奈麻禮冠 卽身心歸附於他易照.」

79) 《日本書紀》卷15 顯宗天皇 3년(487) 是歲條

「紀生磐宿禰 跨據任那 交通高麗 將西王三韓 整脩官府 自稱神聖. 用任那左魯那奇他甲背等計 犀百濟適莫爾解於爾林〔爾林 高麗地也〕築帶山城 距守東道 斷運粮津 令軍飢困. 百濟王大怒 遣領軍古爾解・內頭莫古解等 率衆于帶山攻. 於是 生磐宿禰 進軍逆擊 膽氣益壯 所向皆破 以一當百 俄而兵盡力竭 知事不濟 自任那歸. 由是 百濟國殺佐魯那奇他甲背等三百餘人.」

우선 위의 사료 4·5·6은 모두 〈〈百濟本記〉〉 제통의 사료로서 임나일본부의 일원인 河內直·移那斯·麻都의 身元에 대해 백제의 성왕이 언급한 내용을 추출한 것이다. 위에서 加不至費直·阿賢移那斯·佐魯麻都 즉 河內直·移那斯·麻都是 세 사람으로서⁸⁰⁾ 일본부 내의 親新羅政策을 주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선조는 那奇(干)陀甲背와 加獵直岐甲背(또는 鷹奇岐彌)이며,⁸¹⁾ 그중에서 麻都(아마도 移那斯 포함)는 韓腹 즉 倭人과 加耶人(또는 百濟人) 사이의 混血人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더욱 상세한 계보를 그려내기도 하였으나,⁸²⁾ 사료에 의거해 볼 때 더 이상의 추정은 무리한 것이라고 하겠다.

- 80) 河內直移那斯麻都를 姓氏가 河內直이고 이름이 移那斯麻都인 한 사람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즉 李弘植은 吉田東伍의 견해(〈〈日韓古史斷〉〉 pp.506~511)를 이어받아 그렇게 추정하고, 〈〈日本書紀〉〉에서 이를 세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은 撰者の 잘못이라고 보았다(李弘植, 1936, 앞 논문, pp.28~35). 그러나 별 다른 근거없이 〈〈日本書紀〉〉의 기록을 무시하여 이들을 한 사람으로 볼 이유는 없으며, 이노우에가 이를 세 사람으로 정리한(井上秀雄, 1966, 앞 논문; 1973, 앞 책, pp.83~87) 이후에는 대체로 그 견해를 따르고 있다.
- 81) 那奇陀甲背·加獵直岐甲背·鷹奇岐彌에 대해서는, 가사이가 이노우에의 견해(앞의 논문)를 이어받아서 加不至費直·移那斯·麻都의 세 사람은 祖父(즉 那奇陀甲背)를 같이하고 父(즉 加獵直岐甲背와 鷹奇岐彌)를 달리하는 血緣者들이라고 정리하면서(笠井倭人, 1971 〈加不至費直の系譜について—「百濟本記」讀解の一例として—〉 〈〈日本書紀研究〉〉 5, pp.155~157),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그 후 야마오와 스즈끼는 이를 수정하여, 그들의 父는 加獵直岐甲背 또는 鷹奇岐彌라고도 불리우는 한 사람으로서, 그는 加羅에 있다가 백제에 험겨倭國으로 망명한 사람이었다고 추정하였다(山尾幸久, 1978, 앞 논문, p.213; 鈴木英夫, 1987, 앞 논문, p.81).
- 82) 가사이는 移那斯·麻都가 鷹奇岐彌의 아들이고 加不至費直이 加獵直岐甲背의 아들이라고 추정하였다.(笠井倭人, 1971, 앞 논문, p.156). 야마오는 河內直은 加獵直岐甲背=鷹奇岐彌가 加羅에서 倭로 이주하였을 때 낳은 아들이고 移那斯·麻都는 鷹奇가 倭에서 다시 安羅에 와서任那人에게서 낳은 아들로 보았으며(山尾幸久, 1979, 앞 논문, p.213), 스즈끼는 移那斯·麻都는 加獵直岐甲背 = 鷹奇岐彌가 한국에 있을 때 百濟婦 또는 加耶婦에게서 낳은 아들로서 純然한 加耶人 또는 百濟系加耶人이고 河內直은 鷹奇가 일본으로 이주한 후 倭婦에게서 낳은 아들로서 加耶系倭人이라고 하였다(鈴木英夫, 1987, 앞 논문, p.81). 모리는 야마오의 계보를 대략 받아들이되 麻都가 韓腹 즉 韓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移那斯·麻都는 加獵直岐甲背와 安羅系女 사이의 아들이고 河內直은 加獵直岐甲背와 百濟系女 사이의 아들이라고 보았으며(森俊道, 1983 〈任那日本府の加不至費直〉 〈〈東アジアの古代文化〉〉 37, 大和書房, p.42), 延敏洙는 이를

백제에 의해 那奇陀甲背가 죽고나자, 그 후손인 加獵直岐甲背가 어디론가(아마도 倭國으로) 망명을 하였으며, 그 후 어떤 경로를 거쳐 그의 후손인 移那斯·麻都와 河內直 등이 安羅에 정착하게 되었으되, 그런 과정에서 그들의 일부는 어떤 형식으로든 倭人系와 연관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중에서 河內直은 移那斯·麻都와 달리 的臣·吉備臣과 함께 나열되기도 하므로,⁸³⁾ 移那斯·麻都보다 좀더 日本人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어쨌든 그들은 백제에 의해 살해된 那奇陀甲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일단 任那日本府에 소속되자 新羅에 내왕하면서 신라로부터 奈麻 벼슬까지 받아(사료 6) 적극적인 反百濟·親新羅의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백제에 의해 那奇陀甲背가 죽고 爲哥可君과 加獵直岐甲背가 왜국으로 축출당한 연유는 무엇이었을까? 顯宗紀 소재의 사료 7에 의해 그 사건을 정리해 보자. 사료 7은 〈〈百濟本記〉〉 계통의 사료가 아니고 倭의 紀生磐宿禰⁸⁴⁾ 계통의 氏族傳承으로 보이므로, 그 편년이나 표현을 그대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사료이나⁸⁵⁾ 일단 그 줄거리만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우선 사건의 줄거리를 보면, 紀生磐이 任那의 那奇他(陀)甲背와 연합하여, 백제의 適莫爾解를 고구려 땅인 爾林에서 죽이고 帶山城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백제의 領軍 古爾解와 內頭 莫古解의 토벌을 받아 紀生磐은 일본으로 도망가고 那奇他甲背는 죽었다는 것이다.

받아들이면서 더욱 논리를 진전시켜 移那斯·麻都는 加獵直岐甲背와 己汝國(남원·임실)女 사이의 아들이고 河內直은 加獵直岐甲背와 百濟系女 사이의 아들이라고 보았다(延敏洙, 1990 〈任那日本府論〉 p. 103).

83) 〈〈日本書紀〉〉 권19 欽明天皇 5년 3월조

「今の臣·吉備臣·河内直等 咸從移那斯·麻都指撃而已。(中略) 於是 詔曰 的臣等[等者 謂吉備弟君臣·河内直等也] 往來新羅 非朕心也。」

84) 紀生磐宿禰는 전설적인 인물인 武內宿禰·紀角宿禰 계통의 후손인 듯하며 (河村秀根, 1785 〈〈書紀集解〉〉에서 「按 紀角宿禰之孫」이라고 함), 신라에서 싸우다 전사한 紀小弓宿禰(雄略紀 9년 3월조)의 아들로서, 雄略紀 9년(465) 5월조에는 紀大磐宿禰라고 되어 있어 蘇我韓子宿禰를 신라에서 백제가는 길에 살해한다는 설화가 있으나, 그의 實存 여부 및 웃기사와의 실제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85) 특히 그 기사의 연대가 487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나, 「跨據任那 交通高麗將西王三韓 整脩官府 自稱神聖」의 표현, 「進軍逆擊 膽氣益壯 所向皆破 以一當百」의 표현 등은 단순한 作文에 지나지 않는가 생각한다.

이 기사의 해석에 대한 기존설로서는, 사건의 무대인 帶山城을 全北 井邑郡 泰仁(古名 大戶山郡)의 磺石山城으로 보아倭지배의 任那영역을 전북까지 확장해서 본 舊說,⁸⁶⁾ 帶山城을 慶北 星州의 禿用山城(古名 狹山縣)으로 보아 가야북부지역을 백제가 지배하였다는 근거로 삼은 新說,⁸⁷⁾ 및 新說을 바탕으로 해서 왜왕권이 紀生磐을 보내 木滿致의 후계자로서 임나의 직접경영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본 견해⁸⁸⁾ 등이 있다. 또한 여기서의 爾林을 任實의 己汝國으로 보아, 이를 백제가 南進하여 己汝國을 토벌한 사건으로 본 최근의 奇說⁸⁹⁾도 있다.

그러므로 이 기사 해석의 초점은 일단 帶山城·爾林 등의 위치를 어디로 비정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帶山城은 그와 비슷한 지명이 너무도 많고 더 이상의 관련 고증자료가 없어서, 이 지명을 어디로 비정하든 간에 이를 결정적인 기준으로 이용하기 어렵다.⁹⁰⁾ 또한 爾林의 위치에 대해서는, 應神紀 16년(405)조의 이른바 '東韓之地'인 甘羅城·高難城·爾林城 기사와 연관하여 이를 전북 任實郡으로 보는 견해,⁹¹⁾ 전북 金堤郡 利城縣으로 보는 견해,⁹²⁾ 경기도 臨津으로 보는 견해⁹³⁾ 등이 있다. 한편 馬韓의 一國인 兒林國과 爾林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면, 兒林을 충남 舒川(古明 舌林郡)으로 보는 견해⁹⁴⁾ 및 충남 大興(古名 任存城)으로

86) 鮎貝房之進, 1937 〈日本書紀朝鮮地名攷〉 〈〈雜攷〉〉 7 下卷, pp. 28~30.

末松保和, 1949, 앞 책, pp. 106~107.

87) 千寬宇, 1977, 앞 논문(中), pp. 928~929.

大山誠一, 1980, 앞 논문(中), pp. 694~696.

오오야마의 설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拙稿, 1985, 앞 논문, pp. 74~75 참조.

88) 山尾幸久, 1978, pp. 217~219.

89) 延敏洙, 1990 〈六世紀前半 加耶諸國을 둘러싼 百濟·新羅의 動向 一소위 「任那日本府」說의 究明을 위한 序章一〉 〈〈新羅文化〉〉 7,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pp. 106~112.

90) 그런 점에서 보아, 帶山城의 지명비정을 핵심으로 하여 논리를 진전시킨 기존 설들의 위치는 불안하다.

91) 鮎貝房之進, 1937, 앞 책 하권, pp. 25~27.

92) 末松保和, 1949, 앞 책, pp. 76~77.

93) 山尾幸久, 1978, 앞 논문, p. 218.

94) 那珂通世, 1895 〈朝鮮古史考 第五章 三韓考〉 〈〈史學雜誌〉〉 6-6, p. 40.

李丙燾, 1935 〈三韓問題의 新考察(三)〉 〈〈麗檀學報〉〉 4, p. 43.

千寬宇, 1979 〈馬韓諸國의 位置試論〉 〈〈東洋學〉〉 9, p. 215.

보는 견해⁹⁵⁾ 등도 참고가 된다.

그 중에서 爾林을 任實郡으로 보는 견해 또는 利城縣으로 보는 견해는 '爾林(니리무)'과 '임실' 또는 '乃利阿'(利城縣의 古名)의 발음을 단순비교하여 동일시한 것으로서,⁹⁶⁾ 결과적으로 그 위치를 전라북도 일원에 비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爾林이 高麗 즉 고구려의 땅이었다는 顯宗紀 3년 是歲條 細注의 기록(사료 7)과 정면 배치되므로, 그 사료상의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잘못된 지명비정이라고 하겠다.⁹⁷⁾ 경기도 臨津은 그 위치로 보아서 고구려의 땅이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지역의 고구려 당시古名은 '津臨城'이었으므로,⁹⁸⁾ '爾林'과 音相似에 의한 비교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필자는 爾林이 고구려 땅이었다는 顯宗紀 3년조의 기사를 중시해야 한다고 보며, 이는 欽明紀 11년(550) 4월조에서 백제가 爾林전투에서 잡은 포로를 「高麗奴」라고 하는 것으로⁹⁹⁾ 보아서도 확인된다. 여기에 나오는 高麗奴 7口는 欽明紀 9년 4월조에 보이는 馬津城전투와 연관하여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馬津城의 위치는 비교적 분명하여 지금의 忠南 禮山郡 禮山邑에 비정되므로,¹⁰⁰⁾ 爾林은 그 주변의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

95) 鮎貝房之進, 1937, 앞 책 하권, pp. 27~28.

96) 앞의 주 91·92와 같음.

97) 그러므로 爾林을 任實로 보고 백제의 己汝國 공략을 운위한 最新說(延敏洙, 앞 논문, p. 110)도 주요 근거자료의 하나가 부실한 것이다. 또한 거기서 「距守東道斷運糧津」의 東道(ヤマトチ)를 백제의 對日交通路로 보아 섬진강 상류역을 주목하였는데(같은 논문, p. 109), 백제의 對日교통로가 섬진강 상류역만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 그 東道가 막히자 백제군이 飢困하였다고 하므로, 백제군이 평소에 일본으로부터 군량을 지금 받고 있었다는 조건이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전라북도의 그 넓은 곡창지대를 두고 따로 백제가 일본으로부터 군량을 지급받았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98) 《三國史記》 권35 雜志4(地理2) 漢州 開城郡條

「臨津縣 本高句麗津臨城 景德王改名 今因之」

99) 《日本書紀》 권19 欽明天皇 11년 4월조

「百濟王聖明 謂王人曰 任那之事 奉勅堅守。延那斯·麻都之事 問與不問 唯從勅之。因獻高麗奴六口。別贈王人奴一口(皆攻爾林 所禽奴也).」

100) 《三國史記》 地理志의 기록으로 보아, 馬津城은 백제 멸망 후에 당나라가 설치한 支渾州의 屬縣으로서 본래 孤山이었다 하는데, 孤山 또는 烏山은 통일 신라 熊州 任城郡(지금 禮山郡 大興面)의 領縣인 孤山縣이니, 지금의 위치는 충남 禮山郡 禮山邑이다.

다. 그러므로 爾林의 위치를 기타의 견해 중에 하나인 禮山郡 大興 정도로 보고자 한다. 게다가 大興의 古名인 任存城과 爾林과의 音相似 관계도 그리 동떨어진 것은 아닌 듯하다.

爾林의 위치가 忠南 禮山郡 大興지방이고 그 곳이 고구려땅이었다고 볼 때 帶山城은 거기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변경지대의 백제땅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료 7의 紀生磐事件은 웅진시대에 백제의 어떤 귀족 세력이 가야(또는 백제)의 한 지방세력과 연합하여 백제왕권에 대한 모반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여 토벌되는 것을 나타내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475년의 熊津遷都 이후 백제는 왕권이 혼들려서 어려움이 많았고 그 와중에 충남지역에서는 478년 解仇의 亂,¹⁰¹⁾ 501년 苗加의 亂¹⁰²⁾ 등 내란이 많았는데, 紀生磐의 亂은 그와 같은 종류 중에서 규모가 작은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여기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살펴 본다면, 사료 5의 爲哥可君은 〈〈日本書紀〉〉 卜部兼右本에 인용된 〈〈百濟本記〉〉에 爲哥岐彌有非岐라고 나오는데, 有非岐는 〈〈日本書紀〉〉 北野本에 ‘有非跛’라고도 나오는 바,¹⁰³⁾ 有非跛(うひは)는 사료 7의 紀生磐의 이름인 生磐(おいわ)과 통하므로, 爲哥岐彌有非跛와 紀生磐宿禰는 동일인물로 추정된다.¹⁰⁴⁾ 게다가 雄略紀 이후에서 한반도관계 전승을 가진 씨족의 家傳에는 將軍型의 것이 많고 그 家傳의 편찬목적도 자기 씨족의 군사능력의 탁월함을 주장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 많으므로,¹⁰⁵⁾ 여기서의 紀生磐 또는 爲哥岐彌有非跛가 반드시 倭人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紀生磐 또는 爲哥岐彌有非跛는 倭人이었다기 보다, 오히려 유력한 백제귀족 중의 하나로서 이 당시에 왜국으로 망명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¹⁰⁶⁾ 사료 5에서 백제 성

101)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三斤王 2년(478) 봄조.

102) 윗 책, 東城王 23년(501) 11월조 및 武寧王 즉위조.

103) 〈〈日本書紀〉〉의 판본 중에 北野本은 卜部兼右本보다 古本에 속한다. 日本古典文學大系, 1965 〈〈日本書紀〉〉下, 岩波書店, 東京, p. 80 註 12 참조.

104) 大山誠一, 1980, 앞 논문(中), p. 697. 오오야마는 書紀 編著가 百濟系史料와 日本側傳承을 접종하여 紀生磐이라는 人名을 창작한 것이라고 보았다.

105) 井上秀雄, 1971 〈〈大和朝廷と朝鮮諸國との關係 一「日本書紀」の日本側傳承史料よりみて一〉〉 〈〈朝鮮學報〉〉 60; 1973 〈〈任那日本府と倭〉〉 p. 276.

106) 이미 千寬宇 선생은 紀生磐을 百濟人으로 추정한 바 있다(1975 〈任那日本府의 虛構〉 〈〈韓國史의 再照明〉〉 讀書新聞出版社, p. 105). 또한 일본 고대 귀족 중의 紀氏는 백제 大姓八族 중의 하나인 木氏, 특히 그 중에서도 木滿致의 후손일 것이라고 추정한 연구가 있다(李弘植, 1936, 앞 논문, pp. 52~53; 千寬宇,

왕이 ‘爲哥可君이 오로지 그 말을 믿어 나라의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고 내 마음(여기서는 百濟王室의 意思: 필자주)을 거역하여 제멋대로 暴虐을 저질러서 이 때문에 죽겨났다.’고 표현한 것은, 천도 직후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려한 백제귀족의 모반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야할 듯하다.

또한 任那의 左魯 那奇他甲背에서, 佐魯는 사료 4·5의 ‘佐魯麻都’와同一人인지, 또는 단순히 姓인지 地名인지 官名인지 결정짓기 어렵다. 다만 사료 5에서 麻都를 那干陀甲背등의 후손이라 하므로 左魯와 佐魯麻都가 동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那奇他甲背와 麻都가 같은 姓으로서 佐魯를 칭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阿賢移那斯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는 《三國史記》 地理 4에 나오는 佐魯縣(지금 전북 高敞郡 茂長面)이라는 地名으로 보아¹⁰⁷⁾ 那奇他甲背가 佐魯지방 사람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으나,¹⁰⁸⁾ 그런 예는 다른데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佐魯(さろ)는 《三國志》 魏書 東夷傳 辰弁韓條의 ‘殺奚’와 같이 임나지역의 전통적인 邑落渠帥 또는 在地勢力의 官名으로¹⁰⁹⁾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다만 그가 원래부터 가야 지역 어느 지방의 小君長으로서 백제지역에 와서 활동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백제 帶山城 일대의 재지세력이었는데 그의 후손들이 훗날 安羅에서 주로 활약하게 되어(사료 4·5) 그들 계통의 사료에서 그를 任那左魯라고 칭하였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런데 그의 이름으로 보이는 那奇他의 뒤에 붙은 ‘甲背’의 칭호는 백제 계통의 官名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백제의 사신 중에 ‘麻那甲背’¹¹⁰⁾ 또는 ‘城方甲背 味奴’¹¹¹⁾ 등의 이름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城方甲

1977, 앞 논문(中), p.927). 그러나 蘇我氏의 선조인 蘇我滿智를 木滿致와 동일시하는 견해(門脇禎二, 〈蘇我氏の出自について〉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12)도 유력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렵다.

107) 《三國史記》 卷37 雜志6 地理4 沙泮州條「沙泮州 佐魯縣 本上老」 같은 책, 地理3 武州條「武靈部 長沙縣 本百濟上老縣」

108) 만일 그렇게 볼 수 있다면 佐魯 那奇他甲背의 앞에 붙은 ‘任那’라는 수식어는 단순히 한반도라는 뜻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사료상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가 실제로 가야지역의 사람일 가능성도 남겨둘 수밖에 없다.

109) 가사이는 佐魯가 ‘城方’이라는 관명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笠井倭人, 1971, 앞 논문, p.154. 그러나 佐魯와 城方을 같은 의미에 대한 音借 및 訓借표기로서 동일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110) 《日本書紀》 권17 繼體天皇 23년 3월조 참조.

111) 《日本書紀》 권19 欽明天皇 2년 4월조 참조.

背는 백제 5方城 중 하나의 장관 명칭이 아닐까 추정되며, 만일 그렇다면 那奇他甲背도 백제의 큰 지역단위 또는 그 이하 단위의 郡·城 등에서 地方官으로 재직하고 있던 자가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任那 佐魯(左魯) 那奇他甲背는 任那在地의 小君長 또는 백제 帶山城지역의 재지세력 출신으로서 백제에서 벼슬한 地方官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那奇他甲背는 당시에 가야 또는 帶山城 일대 재지세력 출신의 백제 지방관으로서 그 반란에 참여했다가 백제의 토벌을 맞이해서 싸우다가 죽고, 그 아들로서 함께 백제에 모반한 加獵直岐甲背는 爲哥岐彌와 함께 왜국으로 망명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 후 이들의 直系 세력은 安羅 및 倭地에서 反百濟의 성향을 유지하다가, 이들이 임나일본부에 관여하게 되면서 일본부의 성격이 親新羅의 성향을 띠게 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540년대 이후의 사료에 보이는 임나일본부 관료 즉 「在安羅諸倭臣」은 모두 倭人 또는 加耶系倭人으로 구성되어 되어, 안라의 요청에 의해 왜국과의 연관 아래 임명된 的臣·吉備臣·河內直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거기에는 백제가 임의로 파견한 印岐彌·許勢臣과 안라측의 입장에 대변하는 移那斯·麻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즉 임나일본부는 원래 백제 및 가야제국과 왜국 사이의 교역을 담당하는 기구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성립 및 변질과정에 어느 정도 왜국이 관여했고 구성원이 모두 倭臣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6세기 전반 당시 삼국 및 가야 사이의 미묘한 국제관계를 여전으로 해서 주로 백제 및 안라의 이해관계를 위해 존재하게 된 것 이므로, 그 조직의 실질적인 운영권은 왜국이 아니라 백제(성립 초기) 또는 안라(변질 이후)가 쥐고 있던 것이다. 또한 安羅는 임나일본부가 자기 지역안에 설치된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인원 및 조직을 적절히 통제하여, 안으로는 가야연맹 내에서의 位相을 높이고 밖으로는 백제의 가야지역 부용화대책을 막아내는 명분으로 이용했다고 하겠다.

임나일본부는 백제가 왜국과의 교역을 평계삼아 안라를 잠식해 들어가기 위한 구실이었고, 반대로 안라가 왜국과의 교섭을 평계삼아 백제·신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기 위한 구실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540년대 이후의 사건전개 과정으로 보아,¹¹²⁾ 힘과 실질에 기반을 두지 않은 그 구실은

112) 540년대 이후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할 별도의 논문인 <6세기 중엽 加耶의 멸망에 대한 연구>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거의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맺음말

「任那日本府」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논리를 진행시키다 보니, 安羅보다 任那日本府 문제에 좀더 비중이 두어진 듯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되, 安羅를 비롯한 加耶聯盟諸國을 주체로 삼아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임나일본부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학설은 ①倭에 의한 任那支配機關說 ②百濟의 派遣軍司令部(또는 直轄領統治機關)說 ③加耶在地倭係集團의自治機關說 ④加耶·倭 사이의 外交機關說 ⑤加耶·倭사이의 交易機關說 등이 있다. 그 중에서 ①②③의 학설은 〈〈日本書紀〉〉欽明紀의 자료에 의해서만 보아도 근거가 없으며 대체로 자체모순이다. ④⑤의 학설들도 기본적인 문제가 없지 않으나 그 중에서 합리적인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加耶史에 응용할 여지가 있을 듯하다. 그러한 관점에 의하여 任那日本府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관계사료를 530년대 가야사의 전개과정과 종합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530년대 전반에 가야동남부지역의 喻己昏·南加羅가 신라에 의해 멸망하고 가야서남부지역은 백제군에 의해 安羅 동쪽의 久禮山戍까지 일시 점령당하였다. 그후 530년대 후반의 어느 시기에 백제는 安羅에倭人印岐彌를 파견하여 任那日本府를 설치하였다. 성립 초기의 임나일본부는 백제가 안라에 설치한 백제·왜 사이의 교역대행기관의 성격을 띠되, 백제는 이를 명분으로 삼아 安羅·卓淳을 거쳐倭로 통하는 교역로를 확보하려고 한 듯하다. 반면에 安羅는 그러한 백제의 의도와 임나일본부의 존재를 이용하여 세력을 주변으로 확대함으로써, 북부의 大加耶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중심세력으로 대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백제가 扶餘遷都 등의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관심이 흐트러져 있을 때, 卓淳國은 그 북부에 설치되어 있는 久禮山戍와 관련한 백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신라의 정치적 공세 또는 유혹을 받아들여 투항하였고, 신라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久禮山戍에 주둔한 백제 군사를 몰리쳐 쫓아냈다. 그러자 安羅는 신라의 무력공세의前面에 드러나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백제의 간섭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었다.

이에 안라는 백제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나일본부의 왜인관리들을 재편 성함으로써 그 기구를 장악하였다. 540년대 이후 임나일본부의 관료 즉 「在安羅諸倭臣」은, 안라의 요청에 의해倭와의 연관 아래 임명된 的臣·吉備臣·河內直파, 백제가 임의로 파견한 印岐彌·許勢臣, 안라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加耶系倭人인 移那斯·麻都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이후의 임나일본부는 안라와 왜 사이의 교역기관으로 성격이 변질되면서, 실제로는 안라의 주도 아래 가야연맹체국이 신라와 백제로부터의 外壓을 막아내는 방패막이의 구실을 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른바 任那日本府라는 것은 그 구성원이 왜인계통이었다고 해도, 왜가 가야지역을 통할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아니고, 백제 또는 加耶諸國이 왜와의 교역 및 외교교섭을 위해서 설치한 기구였다. 또한 임나일본부의 운영은 그것이 위치한 安羅의 王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였으며, 그런 중에 그것이 왜를 부추겨서 백제로부터의 외교적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훗날 백제와 왜의 교역관계가 정상화 되면, 실질에 기반을 두지 않는 가야의 그 구실은 虛像이 될 뿐이었다.